

조선시대 물고기관계문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ocuments Related to Fishery in the Joseon Period

韓美鏡 (Han, Mi-Kyung)*

◁ 목 차 ▷

- | | |
|-----------------------|---------------------|
| 1. 서 언 | 3.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의 비교 |
| 2. 물고기관계문헌 | 3.1 배경부분 |
| 2.1 15-18세기의 물고기관계 문헌 | 3.2 내용부분 |
| 2.2 19세기 물고기관계문헌 | 4. 결 언 |
|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현대적 활용을 위하여 15-19세기의 물고기관계문헌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1425년 『慶尙道地理志』 土山部에 처음으로 물고기 관련 내용이 등장한 이래로 18세기말까지의 지리서, 역사서, 유서, 농서, 의서, 시문선집 및 대역어휘집 등과 같은 물고기관련문헌에서는 주로 물고기의 명칭과 산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둘째, 19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백과사전류가 편찬되면서 다양한 백과사전에서 물고기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도 편찬되었다. 이에 종합적인 백과사전과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으로 구분하여 물고기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셋째, 특히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인 『牛海異魚譜』와 『茲山魚譜』 및 『蘭湖漁牧志』를 대상으로 배경부분(조사지역, 편찬경위, 조사방법)과 내용부분(분류, 수록종수, 문체, 어명표기, 내용기술, 인용문헌)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 후 그 특징과 가치를 논하였다.

要語: 『蘭湖漁牧志』, 물고기관계문헌, 魚譜, 『牛海異魚譜』, 『茲山魚譜』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mkhank@korea.com)

접수일: 2009년 12월 3일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4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10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ocuments related to fishery which were produced in the 15th-19th century for their application to modern times and discusses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since the records about fish had first appeared in *Kyungsangdojiriji Tosanbu* in 1425, names and origins of fish were recorded in many books of various subjects, including geography, history, encyclopedia, agriculture, medicines, anthologies, and bilingual dictionaries, published till the late 18th century.

Secondly, since the turn of the 19th century, various general encyclopedias presented the contents related to fish and some specialized encyclopedias of fish were also published. In this study, contents about fish are examined from both general encyclopedias and specialized encyclopedias of fish.

Thirdly, in this study *Woohaeyieobo*, *Jasaneobo*, and *Nanhoeomokji*, all specialized encyclopedias of fish, are examin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ir background(by areas of investigation, reasons for compilation, and investigation method) and contents(by classification, number of species recorded, writing style, indication of fishery names, content description, and reference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each encyclopedia are discussed.

Key words: eobo, fishery related documents, *Jasaneobo*, *Nanhoeomokji*,
Woohaeyieobo

1. 서 언

1.1 연구의 목적

사전적 의미의 백과사전(Encyclopedia)이란 ‘지식의 모든 분야의 술어들을 모아 설명한 사전’으로 일반 백과사전 외에 전문 갈래에 따라 과학·역사·철학 등의 전문분야 백과사전들이 있다. 서양의 초기의 백과사전은 교육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식 전문분야에 걸친 교육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인간이 지닌 지식의 총체를 요약해주는 하나의 저작을 의미하면서 참고자료의 하나로서는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¹⁾

백과사전에 대한 용어로 중국에서는 ‘智環啓蒙’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이후 ‘百科全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백과사전 형식의 지식 습득용 참고자료인 ‘類書’가 편찬되어 왔다. 특히 조선시대 말기에 들어 다양한 백과사전류가 편찬되었는데, 그중 개인이 편찬한 백과사전으로 李瀼의 『성호사설』, 丁若銓의 『茲山魚譜』, 李奎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李晩永의 『才物譜』, 柳僖의 『物名考』 등이 있다. 그중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편찬한 전문 백과사전이나 그 외에는 모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기술하고 있는 종합적인 백과사전으로 물고기 관련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물고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문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조선시대 개국 이래 등장하고 있다. 즉, 대략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물고기의 명칭이나 산지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19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백과사전이 편찬되는 시기에는 종합적인 백과사전 내에 하나의 항목 또는 부문으로 물고기에 대하여 기술하거나 전문적인 백과사전 성격의 魚譜가 편찬되었다.²⁾ 이에 물고기관계문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1) 방언의 연구, 2) 명칭의 연구, 3) 국어학적 연구, 4) 해양박물학

1) 박준식, 『참고정보원』 (대구: 태일사, 2003), 191.

2) 이하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인 용어인 ‘魚譜’보다는 일반적인 용어인 물고기백과사전으로 총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적 연구, 5) 실학 또는 민화 등의 차원에서 연구, 6) 인물의 연구 등이 행해졌다.³⁾ 그러나 전반적인 물고기관계문헌과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으로서의 가치와 관련한 서지학적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한 참고자료의 하나로서의 물고기관계문헌을 대상으로 역사적 및 서지적 고찰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현대적인 활용에의 일조에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와 제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지리서, 역사서, 농서, 유서, 의서 등의 물고기 관계문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리관계문헌에도 물고기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기도 하나 이는 주로 조리를 위한 활용적 측면을 다루고 있기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19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다양한 백과사전이 편찬되고 전문적인 물고기 백과사전도 편찬되므로 19세기를 기준으로 전후의 물고기관계문헌의 편찬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셋째, 19세기 물고기관계문헌은 종합적인 백과사전과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

3) 1) 洪淳鐸, “茲山魚譜와 黑山島 方言,” 『호남문화연구』 1(1963), 75-104. 2) 김연중, “『茲山魚譜』名稱攷,” 『한문교육연구』 21(2003), 411-433. 金洪錫, “『牛海異魚譜』에 나타난 借字表記法 研究: 魚名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29:1(2001), 100-134. 김중빈, “魚譜類에 나타난 19C초의 수산물 어휘연구: 『茲山魚譜』(1814), 『蘭湖魚牧志』(1820), 『物名考』(1824?)의 수록 어휘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12(2004), 137-173. 박구명, “『우해이어보』·『자산어보』·『난호어목지』,” 『해양과문화』 제5호(2001. 4), 186-207. 3) 金大植, 郭□, 李金喜, “『茲山魚譜』研究,” 『국어국문학논총: 碧史 李佑成 先生 停年退職記念』(서울: 여강출판사, 1990), 105-132. 金洪錫, “『牛海異魚譜』에 나타난 借字表記法 研究: 魚名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29:1(2001), 100-134. 洪淳鐸, “茲山魚譜와 黑山島 方言,” 『호남문화연구』 1(1963), 75-104. 4) 정명현, “정약전(1758-1816)의 『자산어보』(茲山魚譜)에 담긴 해양 박물학의 성격,” (과학사 및 과학철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2). 5) 李漱玉, “朝鮮末期魚蟹圖-民書를 중심으로,” 『古美術』 봄호(1988), 21-24. 6) 허태용, “丁若鎔의 茲山魚譜 연구,” 『韓國人物史研究』 4(2005), 225-249 등이 있다.

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되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으로 우해이어보와 자산어보 및 난호어목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의 비교를 위하여 우해이어보는 규장각 소장본(一叢古 819.55-G416d)을, 자산어보와 난호어목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753-1, 한古朝 68-41)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다만 판본의 비교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섯째, 전문적 물고기백과사전의 비교는 배경부분과 내용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되 각 문헌의 내용과 인용문헌의 고증은 포함하지 않았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물고기관계문헌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와 역사연구를 통하여 진행하며, 19세기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의 조사와 비교는 문헌연구와 서지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물고기관계문헌

물고기관계문헌은 대체적으로 역사서, 지리서와 같은 관찬 편찬서와 농서, 의서, 유서, 그리고 일부 조리관련 문헌 등에 개인저술의 일부 또는 하나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백과사전 성격의 문헌들이 다양하게 편찬되면서 물고기관련 내용이 한 부문으로 등장하기도하고 魚名攷나 魚譜 등과 같이 전문적인 문헌으로 편찬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일부 문헌상에 물고기관계 내용이 살피지나 주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물고기관계문헌이 등장하고 있다. 조선시대 물고기관계문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425년 河演 편찬의 『慶尙道地理志』 土山部に 실려 있는 21종의 기록이라 알려져 있다.⁴⁾ 이후 18세기말까지의 대부분의 물고기관계문헌은 물고기에 대한 명칭과 산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고기에 대한 어명, 형태, 습성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문헌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등장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19세기를 전후로 물고기관계문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정문기, 『韓國魚圖譜』 (서울: 一志社, 1977), 6.

2.1 15-18세기의 물고기관계문헌

우선 고려시대 문헌으로 고려 중기에 송나라의 사신으로 개성을 다녀간 徐兢이 쓴 『高麗圖經』(1123년)에 고려의 어업을 언급하면서 세민이 먹는 해산물⁵⁾이 기재되어 있으나 물고기를 정리 기술하는 문헌은 조선시대 개국 이후 등장한다. 즉, 15세기에 들어 지리서 등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그중 1425년의 『慶尙道地理志』 이래로 다양한 문헌에 물고기가 기록되고 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물고기관계문헌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⁶⁾

<표 1> 15-18세기 물고기관계문헌

서명	간사년	내용	비고
慶尙道地理志	1425	土山部에서 靑魚, 年魚, 大口魚, 廣魚, 銀魚, 黃魚, 雙魚, 鯨魚, 方魚, 洪魚, 都音魚, 古都魚, 鮒魚, 白魚, 鯉魚, 葦魚, 水魚, 石首魚, 錢魚, 松魚, 點察魚 등 물고기의 이름과 산지 소개	지리서
慶尙道續纂地理志	1469		
新撰八道地理志	1432	土産部에서 물고기 10여종의 명칭과 산지 기록	지리서
鄉藥集成方	1433	卷76 本草蟲鱗에서 11종의 물고기에 대한 한자명, 방언 및 약성 기록	의서
高麗史	1454	권56-58 地理志 土産部에서 물고기 10여종의 명칭과 산지 기록	역사서 지리지
世宗實錄	1454	地理志 중 각 道 각 郡縣에 수록된 항목 중 魚梁에서 물고기 34종의 이름과 산지 소개	역사서 지리지
東文選	1478	고려 학자 최자의 삼도부에서 鱸, 蚌, 鯊, 鰻, 鱸 등 강에서 잡은 물고기의 이름을 열거	시문선집
新增東國地勝覽	1530	土産部에서 訥魚, 錦鱗魚, 蘇魚, 兵魚, 黃石首魚, 盧魚, 眞魚, 亡魚, 錦魚, 黃小魚, 麻魚, 刀魚, 細尾魚, 松魚, 白條魚, 針魚, 玉頭魚, 行魚, 赤魚, 雙足魚, 銀魚, 爪魚, 筆魚, 林延壽魚, 無泰魚, 細魚 등 물고기 46종의 명칭과 산지 기록	지리서
東醫寶鑑	1611	本草綱目에서 물고기의 이름과 약성 기록	의서
芝峯類說	1614	권20 禽蟲 부문에서 물고기 소개	유서
譯語類解	1690	하권 水族 부문에서 물고기 소개	대역어휘집
北關誌	1693년경 ⁷⁾	각 府를 소개하면서 16종의 물고기의 이름과 산지 기록	지리서
山林經濟誌	17세기후반 ⁸⁾	25종의 물고기의 이름과 산지 및 활용방법 기록	농서
攷事新書	1771	地理部 권12 牧養門 養魚에서 주로 담수어를 대상으로 물고기 20종에 대한 이름과 산지 수록	유서
方言集釋	1778	일부 물고기의 漢, 淸, 蒙古, 倭의 方言들을 채집, 분류 정리후 조선의 諺文으로 번역	대역어휘집

5) 鱸, 鰻, 蚌, 珠母, 蝦王, 文蛤, 蠣房, 龜脚 등 소개.

6) 정문기, 『韓國魚圖譜』(서울: 一志社, 1977), 6-8의 내용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이상 <표 1>에 의하면 15세기에서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편찬된 물고기관계문헌의 내용을 보면 주로 지리서, 역사서지리지, 유서, 의서 등에 물고기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첫째, 15세기의 『慶尙道地理志』와 『慶尙道續纂地理志』, 『新撰八道地理志』와 같은 지리서와 역사서지리지로 『高麗史地理志』와 『世宗實錄地理志』 土産部에 물고기의 명칭과 산지가 소개되어 있다. 그 외 17세기말에 咸鏡道 十府의 邑誌를 개괄한 책인 『北關誌』 등에도 물고기의 이름과 산지가 기록되어 있다.

둘째, 17세기 李睟光의 『芝峯類說』과 18세기 徐命膺의 『故事新書』 地理部와 같은 유서에서도 물고기에 대한 이름과 산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서 성격의 농서로서 朴世當의 『山林經濟誌』 治膳部에도 물고기의 이름과 산지 및 활용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셋째, 15세기의 『鄉藥集成方』과 17세기의 『東醫寶鑑』과 같은 의서의 경우 각각 『鄉藥 本草蟲鱗』에 물고기에 대한 한자명, 방언 및 약성과 『本草綱目』에 물고기의 이름과 약성을 기록하고 있다.

넷째, 기타 15세기의 시문선집인 『東文選』과 대역어휘집으로 17세기의 『譯語類解』와 18세기의 『方言類釋』으로 알려져 있는 『方言集釋』에도 물고기에 대한 내용 또는 언문이 기록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鄉藥集成方』과 『東醫寶鑑』은 의학문헌인 관계로 물고기에 대한 약성 등도 기록하고 있으며, 『山林經濟誌』의 경우 일부 물고기 활용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물고기관계문헌은 주로 어명과 산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전 문헌을 답습 또는 일부 보강하고 있다.

7) 규장각 소장본 중 목판본(古 4790-18)의 발[跋: 癸酉(1693)…申汝哲, 重刊跋: 甲辰(1784)…申大謙]에 의하면 李端夏가 편집한 책을 申汝哲이 1693(숙종 19)년에 증보하여 간행하였고, 1784年(正祖 8)에 申大謙이 重刊한 것으로 보인다. 이단하가 1693년 이전에 찬술한 것으로 보인다.

8) 장서각 소장의 필사본 『增補山林經濟』(K3*0318 MF35-447,1233~4)의 서[序: 丙戌(1766)…任希聖]와 박세당의 생몰년(1629-1703)에 의하면 중광시 갑과에 장원급제한 1660년부터 1700년 초경에 박세당에 의하여 필사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2.2 19세기 물고기관계문헌

19세기에는 조선사회 내부의 축적된 학문적 성과와 청나라와 서양 학문의 수용 그리고 박학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방대한 백과사전류의 책이 많이 편찬되었다. 그중 물고기관계문헌으로 金鑣의 『牛海異魚譜』, 李晩永의 『才物譜』, 丁若銓의 『茲山魚譜』, 丁若鏞의 『雅言覺非』, 柳僖의 『物名考』, 韓致齋의 『海東釋史』, 徐有渠의 『林園經濟志』, 『廣才物譜』, 徐有渠의 『蘭湖漁牧志』, 丁若鏞의 『物名考』,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趙在三의 『松南雜識』, 黃泌秀의 『名物紀略』 등이 있다. 본장에서는 그중에서 종합적인 백과사전과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2.1 종합적인 백과사전

종합적인 백과사전 성격으로 물고기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만영의 재물보, 정약용의 아언각비, 유희의 물명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사고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재물보

1807(순조 7)년에 李晩永(1748-몰년미상)이 편찬한 자연과 인문계통의 명사를 두루 수록한 4冊의 박물사전적 성격이자 한자 어휘 분류집이다. 주로 한문 문헌에 자주 나오거나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의미에 따라 종류별로 모으고 먼저 한자명을 쓰고 한글로 풀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고전에 있는 문구로 주석을 달고 각 표제항에는 주석이 있고 각각 漢字名, 別名, 俗名, 西域名, 梵名 등이 있으며, 간혹 한글 역주가 있다.

4책의 규장각 소장본(奎 4400)에 의하면 太極, 天譜, 地譜, 人譜로 구성되어 있으며, 卷之七 物譜二 鱗蟲에서 물고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2) 아언각비

1819(순조 19)년에 丁若鏞(1762-1836)이 지은 3권 1책의 한문 필사본이다. 책 이름 ‘雅言覺非’에서 시사하듯이 당시에 잘못 쓰이고 있던 말들을 골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여러 문헌을 인용하여 그 語源, 字義, 音韻, 標準語, 方言 등으로 고증하면서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우리말 어원 연구와 관련된 대표적 저서라 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經古417.09-J466a)을 보면 권1 61항목, 권2 69항목, 권3 64항목 등 총 194항목 450여 단어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이며 그 외에도 자연, 인사, 풍속, 제도, 관직, 동식물, 의식주 및 생활도구 및 그 밖의 사물에 대하여 잘못 쓰고 있는 말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고기 관련 내용으로 권3 권말 부분에 鮠魚, 鱸, 鱸, 鯉, 蜆, 蒲鶖, 水豹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3) 물명고

1824(순조 24)년에 柳僖(1773-1837)가 쓴 만물의 성질과 특성을 간단하게 기록한 일종의 박물지 겸 어휘사전이다. 이 책은 원래 유희의 저술 100여권을 모은 유고집 『文通』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物名類考』라고도 한다. 대개 한자어로 된 사물의 명칭에 대하여 국문 명칭을 붙여 놓았음. 크기·빛깔·형태·산지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위창古740-2)의 경우 5권2책의 필사본을 다시 필사한 1책으로 첫머리에는 ‘方便子 柳僖 著’라는 원저자명이 있다. 有情類, 無情類, 不動類, 不情類의 4부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羽蟲, 獸族, 水族, 昆蟲, 草, 木, 土, 石, 金, 火, 水의 11개 부류로 세분하여 1,660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권2 水族 부문의 ‘麟蟲·介蟲’에서 물고기를 다루고 있다.

4) 임원경제지

1827(순조 27)년에 徐有榘(1764-1845)가 저술한 『林園經濟志』는 일명 『林園經濟十六志』로서 『農事直說』, 『山林經濟』를 토대로 농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모아 놓은 종합적인 백과사전이다.

완질본의 경우 113卷 52책으로 本利志, 灌畦志, 藝畹志, 晚學志, 展功志, 魏鮮志, 佃漁志, 鼎俎志, 贍用志, 保養志, 仁濟志, 鄉禮志, 遊藝志, 怡雲志, 相宅志, 倪圭志의 16개 志로 분류되어 있다.⁹⁾ 그중 卷之 37-40 佃漁志에서 牧養, 弋獵, 漁釣 등의 항목을 다루어 목축과 수렵과 어로 등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어 魚名攷라 하여 물고기의 이름과 모양 등을 설명하고 있다.

5) 오주연문장전산고

1850년경에 李圭景(1788-1863)이 편찬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기타 외국의 고급사물에 대하여 疑義가 있는 것이나 고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면 보이는 대로 고증하고 변증하여 기록하여 엮은 책이다. 이는 원래 더 巨帙이었으나 60권 60책의 필사본만이 崔南善(1890-1957)에 의해 소장되어 오다가 6.25 전쟁으로 소실되고, 다만 최남선 소장본을 필사한 것이 보존되어 전하고 있다.¹⁰⁾

권1의 十二重天辨證說에서 권60의 黃精偏精辨證說까지 모든 영역을 망라한 총 1,417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魚蟲 부분에서 물고기를 다루고 있다.

2.2.2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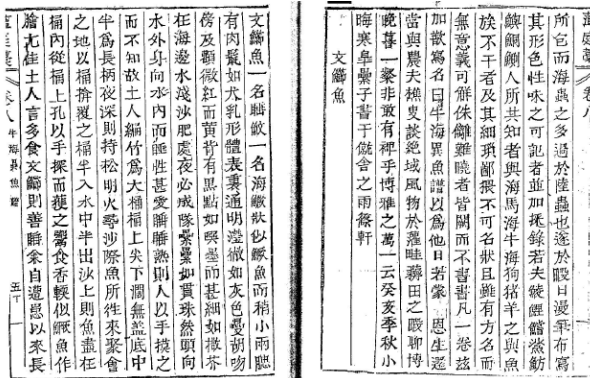
19세기의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인 魚譜類로 김려의 우해이어보와 정약전의 자산어보, 그리고 서유구의 난호어목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저자와 저술 및 소장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9) 16지 이외에 부록으로 그의 조부인 徐命膺이 저술한 『攷事十二條』, 『箕子外紀』, 『緯上』 등 3권과 생부인 서호수(徐浩修)가 저술한 『海東農書』, 그리고 본인이 저술한 『金華知非集』, 『金華耕讀記』, 『杏浦志』, 『蘭湖漁牧志』, 『鷓鴣志』, 『鏤板考』 등이 실려 있다.
- 1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031-3)은 권1에서 권5를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 소장본(奎 5627, 古 0160-13) 또한 모두 영본이다. 전자는 권1-4가 결본이고 후자는 권8과 권31이 결본이다. 원래 전자는 완질본으로 1959년 古典刊行會에서 영인 간행하고, 그 후에 1권서부터 4권까지의 4冊을 잃어버려 落帙本이 되었다.

1) 우해이어보

金鑣(1766-1822)의 본관은 延安, 자는 士精, 호는 潭庭으로 조선 후기 문인이자 학자이자 노론계 가문 출신이다. 1780(정조 4)년 15세에 성균관에 들어가 당시 유행하던 稗史小品體의 문장을 익혔고 金祖淳과 함께 패사소품집인 『虞初續志』를 냈다. 1799년 유배지 부령에서 筆禍를 당해 저술의 대부분이 불타게 되었다. 1801년 飛語 사건이 재조사되면서 천주교도와 교분을 맺은 혐의로 인해 진해로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민들과 친하게 지내고 어촌생활도 익히면서 우해이어보를 내게 되었다. 1806년 아들의 상소로 10년간의 유배생활이 끝나고 벼슬길에 올라 연산현감, 함양군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潭庭遺稿』, 『寒臯觀外史』, 『倉可樓外史』 등이 있다.

우해이어보(그림 1 참조)는 『鎮海之魚貝志』 또는 『潭庭集外書』라고도 한다. 권두부분의 서문에 의하면 「異魚譜」라고 함은 능어, 잉어, 자가사리, 상어, 방어, 연어, 민어, 오징어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海馬, 海牛, 海狗, 海猪, 海羊과 같이 魚族에는 속하지 않은 것들을 비롯하여 하찮은 것이나 의의를 풀이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해이어보는 序文을 쓴 해가 癸亥年 즉 1803(순조 3)년이므로 이를 간사년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물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백과사전인 魚譜類라 할 수 있다.



<그림 1> 우해이어보

이는 김려의 시문집 『潭庭遺藁』의 권8에 수록되어 있으며, 1권1책의 필사본과 목활자본이 있다. 담정유고는 국립중앙도서관에 1종, 규장각에 3종이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목활자본(한古朝46-가80)의 경우 12권 6책으로 완질본이나 그중 권8의 우해이어보의 경우 2009년 11월 현재 소재불명이다. 규장각은 2종의 목활자본과 1종의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그중 1책의 목활자본(가람古 819.55-G416d)과 12권6책의 목활자본(一簣古 819.55-G416d)은 같은 판본으로 조사되었으며, 1책의 목활자본은 권7과 권8의 零本이다.

2) 자산어보

丁若銓(1758-1816)의 본관은 羅州, 자는 天全, 호는 巽庵 또는 研經齋이다.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진주목사 丁載遠의 아들이며, 丁若鏞의 형이다. 1783(정조 7)년에 癸卯 式年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790년에 增廣 문과에 응시, 丙科로 급제하였다. 1801(순조 1)년에 신유사옥으로 薪智島를 거쳐 黑山島에 유배되었다. 그곳에서 復性齋를 지어 섬의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틈틈이 저술로 율적인 심정을 달래다가 끝내 풀려 돌아가지 못하고 16년 만에 배소에서 죽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茲山魚譜』를 비롯하여 『論語難』, 『東易』, 『松政私議』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자산어보』만이 전해오고 있다.

자산어보(그림 2 참조)는 권두부분에 있는 서문의 간사기록 ‘嘉慶 甲戌 洌水 丁 銓 書’에 의하면 1814(순조 14)년에 편찬한 어보이다. 이는 3권 1책으로 완성 이후 필사본으로 유포되었는데 원본은 전하지 않고 대부분은 후사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1종(古753-1), 규장각에 2종(가람古 639.2-J466j, 想白古 507.0925-J466j)이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본 중 가람본의 표지서명은 ‘魚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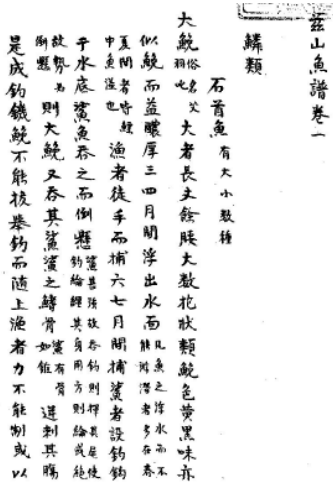
3) 난호어목지

徐有渠(1764-1845)의 본관은 大邱, 자는 準平, 호는 楓石이다. 『攷事新書』를 편찬한 徐命膺의 손자이며, 『海東農書』를 편찬한 徐浩修의 아들이다. 18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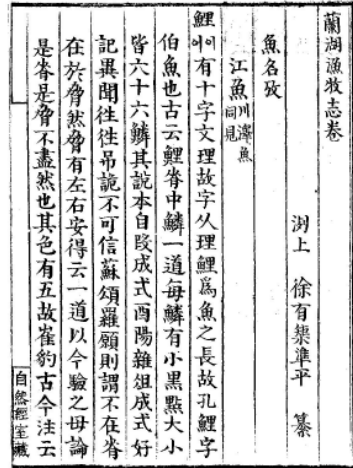
호남순찰사로 근무하면서 일본 통신사편에 부탁하여 고구마 종자를 구입하여 각 고을에 재배를 장려하고, 『種譜』를 저술하여 그 재배법을 널리 알리기도 하는 등 농촌제도의 개혁에 앞장선 인물이다.

『農事直說』, 『山林經濟』 등을 토대로 1827년에 편찬한 『林園十六志』 佃漁志에 수록된 魚名攷의 인용문헌을 살펴보면 『蘭湖魚牧志』가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蘭湖魚牧志』(그림 3 참조)는 임원십육지 전어지 보다 앞서 기술된 것으로 182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권두서명은 魚名考이며, ‘冽上 徐有渠 準平 纂’이라 하여 편찬자가 서유구임을 밝히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만 필사본 1종(한古朝 68-41)이 소장되어 있고, 규장각은 소장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 필사본에 대한 影印版이 1977년에 서울 景文社에서 출판되었으며 규장각의 경우 이를 소장하고 있다.



<그림 2> 자산어보



<그림 3> 난호어목지

3.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의 비교

물고기관계문헌 중 우해어보와 자산어보 및 난호어목지는 19세기 초반에 지어진 대표적인 전문 물고기백과사전인 어보류이다. 본장에서는 이들 3종의 전문 물고기백과사전을 대상으로 배경부문과 내용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각 특징과 가치를 살피고자 한다.

3.1 배경부문

구체적인 배경부문으로는 1) 조사지역, 2) 편찬경위, 3) 조사방법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1.1 조사지역

김려는 1801년부터 1806년까지 6년간 진해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권두의 '序文'에 의하면 그는 유배생활동안 매일 아침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밤을 새우고 돌아와 견문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즉, 우해어보의 牛海는 鎭海의 별명으로 우해어보는 경상도 진해에서의 유배기간 동안 직접 관찰하고 들은 魚物을 체계적으로 정리, 저술한 것이다.

정약전 또한 1801년부터 16년간 신지도를 거쳐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自序에서 '茲山魚譜'라는 題名에 대한 설명과 자산어보를 짓게 된 배경 등이 잘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흑산'이라는 명칭이 어둡게 생각되어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흑산' 대신 '자산'이라는 명칭을 대신 사용하였는데, '茲'자는 '흑'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¹¹⁾ 즉, 자산어보의 茲山은 黑山으로 저자의 귀양지인 전라도 흑산도 연해의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11) 일부 학자와 연구자는 이를 '玄山'으로 주장하거나 '현산'으로 독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자산'으로 칭하기로 한다.

난호어목지의 경우 ‘서’나 ‘발’과 같은 편찬경위를 저술하고 있는 기록이 없어서 구체적인 편찬경위는 알 수 없으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우리나라 전역의 강이나 바다를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포획되는 고기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헌상의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다시 말해, 우해이어보는 현 경상남도 진해 즉 동남해의 물고기를 정리한 것이고, 자산어보는 전라남도 흑산도 즉 서남해의 물고기를 정리한 것이다. 반면 난호어목지는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 또는 포획되는 물고기를 정리한 문헌이다.

3.1.2 편찬경위

우해이어보는 권두의 ‘서문’과 권말의 ‘題牛海異魚譜卷後’를 통해 본서의 편찬 경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김려는 천주교도와 교분을 맺은 혐의로 인해 진해로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1797년 겨울에 飛語 사건에 연좌되어 慶源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 다시 富寧으로 移配되었으며 다시 진해로 옮기는 등 총 10여 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詩文, 漫錄 등을 저술하였는데, 부령에 있을 때 金棼에게 압수되어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특히 진해에 있을 때의 저서는 게을러서 제대로 수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후 상자 중에서 어보가 나오니 조카 鶴淵으로 하여금 정서하게 하여 한권의 우해이어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산어보의 경우 저자의 ‘자서’에서 흑산도의 바다 속에는 매우 많은 어족이 있으나 이름이 알려진 경우가 적어 박물자는 마땅히 살펴야 하며 이에 자신은 어보를 만들고자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조력자 장덕순과 함께 연구하고 序次를 강구하여 드디어 어보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난호어목지의 경우 자세한 편찬경위는 알 수 없으나 이후 대표적인 저술서 『林園經濟志』 외에도 호남관찰사 재직 시절 『種藪譜』를 저술하여 농촌제도의 개혁에 힘을 쓴 인물이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앞서지만 난호어목지의 경우 역시 전국적인 분포와 어명을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여 어촌 생활

의 개선과 개혁에 일조가 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김려와 정약전은 진해와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주변 연해의 물고기의 다양함과 박물학적 연구를 위하여 관찰, 실사, 주변인 탐방 등을 하여 채록하고 정리 기록하여 박물지로서의 연구를 이루고자 한것이다. 반면에 서유구의 경우 본인의 학자적 경향이 바탕이 되고 중국적으로 어민의 생활 개선을 위하여 어보를 편찬한 것으로 생각된다.

3.1.3 조사방법

우해이어보의 경우 서문에 의하면 이상하고 기괴하며 놀랄 만한 물고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보았고, 바다가 육지보다 넓고 해양동물이 육지동물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형색과 성미 중 기록할 만한 것을 함께 채록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어보라 명명한 이유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나, 魚族에는 속하지 않은 것들을 비롯하여, 하찮은 것이나 의의를 풀이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김려는 직접 보고 관찰하고 분석하여 어보를 저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산어보의 경우 자서에 의하면 정약전은 물고기조사 및 박물적 연구를 위해 섬사람들을 탐문하게 되었는데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말을 하여 그 지방에 서식하는 물고기 표준이름을 지칭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마침 德順 張昌大이라는 사람은 두문불출하면서 고서를 독실하게 좋아하였는데 서적이 많지 않은 관계로 식견은 비록 넓지 못하였지만 성품이 매우 정밀하여 草木·鳥魚 등을 잘 고찰하여 그 性理를 터득하고 있어 그와 함께 연구하여 책을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海禽과 海菜도 다루어 후인의 考驗에 도움이 되게 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약전은 직접 실사와 탐방을 기본으로 하고 흑산도 원주민의 도움으로 보다 더 자세하게 조사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난호어목지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주로 우리나라의 강이나 바다를 중심으로 살고 있거나 포획되는 물고기들을 대상으로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험

하지 않은 물고기, 보지 못한 물고기, 자세하지 않은 물고기도 문헌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여러 문헌의 분석과 고찰 및 오류정정 등을 기본으로 하여 기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우해이어보와 자산어보는 진해와 흑산도에서 실질적인 채집 및 주민 방문과 탐방 그리고 문헌연구(이하 3.2.6 인용문헌 참조)를 동원하여 조사하였다. 반면, 난호어목지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살거나 포획되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조사하되 일부 특정물고기의 경우 문헌연구 외에 고찰도 함께 하였다.

3.2 내용부분

구체적인 내용부분으로는 1) 분류, 2) 수록종수, 3) 문체, 4) 어명표기, 5) 내용 기술, 6) 인용문헌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2.1. 분류

우해이어보는 크게 물고기와 비물고기를 구분하여 본문과 부록으로 분류하고 있다(부록 1 참조). 다시 말해 물고기류를 주 부류로 구분하고 부록으로蟹, 蛤, 螺와 같이 개류, 조개류 및 소라류를 부기하고 있다. 서문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종류 등은 제외하고, 비슷한 종류의 어종은 한 항목으로 묶어 다루었다.

자산어보는 우선 鱗類, 無鱗類, 介類, 雜類로 크게 분류하여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2 참조). 제1권 인류에는 石首魚 등 20항목, 제2권은 무인류 및 개류로 무인류에 19항목, 개류에 12항목, 그리고 제3권은 잡류로 海蟲, 海禽, 海獸, 海草 등의 4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난호어목지는 기본적인 江魚와 海魚의 분류 외에 論海魚未驗, 論華產未見, 論東產未詳 등으로 특정 물고기를 분류하고 있다(부록 3 참조). 특히 기본적으로

강어와 해어 즉 민물고기와 바다고기로 나누어 분류하여 주로 우리나라의 강이나 바다를 중심으로 살고 있거나 포획되는 물고기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중 강어의 경우 ‘川澤魚同見’이라 하여 하천과 연못의 물고기도 포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류의 경우 가장 초기의 우헤이어보는 물고기를 기본 분류로 하고 그외 부록으로 일부 계류와 조개 및 소라류를 부기하고 있는 반면 자산어보는 대항목에서부터 소항목에 이르기까지 가장 상세하고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호어목지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민물고기와 바다고기의 대항목 분류만을 하되 증험되지 않았거나 보지 못한 것 그리고 자세하지 않은 것 등과 같은 특정 항목의 물고기 등의 분류도 적용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3.2.2 수록종수

우헤이어보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거나 어족에 속하지 않는 것, 하찮은 것 그리고 뜻해석이 어려운 물고기를 제외하고 진해의 특이한 물고기 72종을 조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고기 53종 외에 갑각류 8종, 패류 10여 종 등을 수록하였다.

자산어보는 대항목과 소항목으로 분류하고 해당 물고기를 수록하고 있다. 즉 인류는 20항목 71종, 무인류는 19항목 45종, 계류는 12항목 65종, 잡류는 4항목 45종으로 총 55항목 226종을 수록하고 있다. 다만 비슷한 어종은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설명하고 있어 실제로 다루고 있는 어종은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

난호어목지는 민물고기 55종, 바다고기 78종, 증험하지 못한 고기 9종, 중국에서 발견되지 못한 고기 11종, 그리고 동양의 물고기로 확실하지 않은 1종, 총 154종을 다루고 있다.

전체 수록종수를 살펴보면 자산어보 226종, 난호어목지 154종, 우헤이어보 72종으로 자산어보가 가장 많은 종수를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물고기 외에 조계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중 물고기의 수록종수만 살펴

보면 자산어보 146종, 난호어목지 133종, 우해이어보 53종으로 민물고기까지 수록하고 있는 난호어목지보다 자산어보의 수록종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3.2.3 문체

우해이어보와 자산어보는 표제어와 설명 부분 모두 한자로 기술하고 있다. 반면 난호어목지는 특히 표제어인 물고기 명칭의 경우 한자와 한글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우선 한자명을 앞세우고 아래에 한글명을 소자쌍행으로 덧붙이고 있다. 그 외에 일부 내용 기술부분을 살펴보면 속칭이나 지방의 방언 또한 한글로 기술 또는 병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속칭의 경우 명태어의 기술을 살펴보면 표제어부분에서는 ‘明鮫魚명티, 북어’라고 기술하고, 내용부분에서는 ‘俗呼生者爲명티 乾者爲북어’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표제어에서 뿐 만 아니라 내용상의 속칭에서도 한글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방언에 따른 명칭 기술을 살펴보면, 일례로 유어는 ‘柔魚독이, 솔뚝이: 湖南人呼爲호독이 海西人呼爲솔독이’라고 한글로 부기하고 있다.

문체와 관련하여 우해이어보와 자산어보는 표제어와 설명 모두 한자로 기술하고 있다. 반면 난호어목지의 경우 표제어는 한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국한문혼용체이며, 설명부분의 경우도 한자로 기술하고 있되 필요의 경우 한글을 병기하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늦은 이유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서유구의 패관문학 성향과 어민 생활 개혁 사상 반영의 일부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3.2.4 어명표기

3종의 전문 물고기백과사전을 살펴보면 물고기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중 표제어의 경우 우해이어보와 자산어보는 한자어로 표기하고 난호어목지는 한자표기 밑에 소자쌍행으로 한글표기를 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물고기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우해이어보는 ‘一名’, ‘俗言’, ‘謂之’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자산어보는 ‘俗名’, ‘俗云’, ‘謂之’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고 있다. 난호어목지는 ‘一名’, ‘又命’, ‘今之’, ‘或稱’, ‘…人呼’, ‘俗呼’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자산어보의 경우 표제어 아래 소자쌍행으로 ‘속명’을 표기하고 있으며, 난호어목지의 경우 예전의 명칭과 대비되는 현재의 명칭의 경우 ‘금지’를 내세워 표기하고 있다. 3종의 전문 물고기백과사전은 해당지역과 어명 등의 상이함으로 동일어종의 구체적인 비교분석은 무리가 있으나 동일하게 등장하는 민어와 오징어 등의 어명 및 속명 등의 표기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어명표기 비교표

	민 어	오 징 어	송 어	비 고
우해 이어보	綠鰓: 一名綠鰓 俗言民魚	鯽鰓: 一名烏老人 一名蝶頭魚 一名烏賊奴 一名僧魚	① 貝魚: 一名貝秀魚 ② 阿只魚矛魚齋: 有名魚鱸 俗謂之秀魚四寸 又有名魚鱸	①②: 송어의 일종
자산 어보	鮠魚: 俗名民魚	烏賊魚	鱸魚: 俗名秀魚 其小者俗呼登其里 最幼者俗呼毛峙	
난호 어목지	鰓魚 민어: 俗呼民魚	烏賊魚 오적어: 一名墨魚 又名纜魚 入藥名海蝶蛸	鱸 송어: 粵人呼爲子魚 東俗爲秀魚	粵人: 중국 광둥인

이상 <표 2>에 의하면 민어에 대한 한자어의 경우 우해이어보에서는 ‘綠鰓’, 자산어보에서는 ‘鮠魚’, 그리고 난호어목지에서는 ‘鰓魚’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속명을 보면 공통적으로 ‘民魚’라고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어의 경우 자산어보와 난호어목지는 ‘鱸魚’와 ‘鱸’로 기록하고 있으나 우해이어보의 경우 송어의 일종으로 2종이 기록되어 있다. 특징적으로 자산어보는 가장 작은 것과 최고 어린것의 명칭 또한 언급하고 있고, 난호어목지에서는 중국에서의 어명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3종의 전문 물고기백과사전 모두 대체적으로

속명은 ‘秀魚’라고 공통적으로 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징어의 경우 우해이어보는 ‘魷鮓’, 자산어보와 난호어목지는 ‘烏賊魚’라 표기하며, 속칭으로 우해이어보의 경우 ‘烏老人’, ‘幞頭魚’, ‘烏賊奴’, ‘僧魚’, 난호어목지의 경우 ‘墨魚’, ‘纜魚’ 외에 약명 ‘海螺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자산어보의 경우 속명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인용문헌과 일설들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 지방 토속인이나 다른 지방의 방언 또는 이명의 경우 우해이어보의 경우 주로 ‘土人’, 자산어보는 ‘北人’ 등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난호어목지의 경우는 ‘東俗爲…’, ‘湖南人呼爲…’, ‘海西人呼爲…’ 등을 앞세워 기술하고 있다(이상 3.2.3. 문체 중 유어의 예 참조).

종합적으로 어명 표기에 있어서 우해이어보와 자산어보가 한자 표제어만을 내세운 것에 비해 난호어목지는 한자 외에 한글 표제명도 병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자 표제어 즉, 물고기 명칭의 경우 19세기 초경 경상도 진해와 전라도 흑산도 연안과 전국의 한자명칭은 차이가 있으나 속칭의 경우 같기도 하다. 지방 토속인이나 다른 지방의 명칭인 방언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난호어목지의 예전의 명칭과 대비되는 현재의 명칭에 대한 설명은 의미가 있다.

3.2.5 내용기술

우해이어보는 물고기의 명칭, 형태, 異名, 별종, 습성, 종류, 맛, 색채, 성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법 등 뿐 만 아니라 어획법 등도 다루고 있으며, 특징적으로 매번 해당 물고기에 대한 내용기술 뒷부분에 ‘牛山雜曲’이라고 해당 물고기와 관련된 시를 지어 덧붙이고 있다. 자산어보는 명칭, 분포, 형태, 색깔, 맛, 습성 및 이용, 약용 등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본문 중에 ‘睛按’을 필두로 인용문헌의 내용을 신거나 분석하고 있다. 난호어목지는 한자 및 한글명칭과 異名, 俗名, 형태, 산지, 크기, 생태, 습성, 가공법, 식미, 약성 등에 관한 것을 상세히 기술하며 인용문헌 또한 분석하고 있다. 일례로 오징어에 대한 내용과 기술항목을 정리

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오징어 항목 내용기술표

	내 용	기술항목
우 해 이 어 보	<p>“① 오노어는 일명 ‘오노인’으로 복두이라고도하며, ‘오적노’라고도 하며, ‘승어’라고도 한다. ② 꼬리 위로는 작은 농어와 비슷한데, 몸과 꼬리가 있고 길이는 한자 남짓쯤 된다. 오므리면 돼지털로 만든 빗자루같고, 펼치면 둥근 부채와 같다. ③ 항상 꼬리를 말고 다니다가 물속에서 까마귀를 보면 꼬리를 펴고 거꾸로 서서 그 몸을 얹어 뱀다. ④ 한쪽 머리는 둥글 둥글하여 중의 머리와 같고, 한쪽머리는 반쯤 열려서 오목한 감옥과 같다. ⑤ 두건을 쓴 것 같은 머리로 물위에 떠 있다가, 물새인 가마우지와 해오라기나 까마귀와 물오리 따위가 나타나면 오목한 머리 안에서 몰래 엿본다. 자신의 머리를 쪼으면, 바로 감옥처럼 오목한 머리를 닫아버리고 물새를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새는 죽고 만다. ⑥ 이 물고기는 몸통의 살은 맛이 없다. 꼬리의 살은 색깔이 열은 황색이나 익히면 붉은 색이 된다. 국을 끓이면 맛이 홍어와 비슷하나, 맵지 않고 매우 맛이 좋다. ⑦ 꼬리의 끝에 군더더기살이 있는데, 새의 알처럼 독이 있어 반드시 떼어내야 한다. ⑧ ‘혼돈복두어’라는 근어종이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꼬리가 펼쳐져 있어서 오므려지지 않는다. ⑨ 이 혼돈복두어를 먹으면 손발이 구부러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한다. 이것도 오징어의 일종이다.”¹²⁾</p>	<p>①일명 ②형태 ③습성 ④맛 ⑤사냥방법 ⑥색깔, 맛 ⑦주의사항 ⑧근어종 ⑨ 약용</p>
자 산 어 보	<p>“① 오적어는 큰 놈은 몸통이 한자 정도이다. ② 몸은 타원형으로 머리가 작고 둥글며, 머리 아래에 가는 목이 있다. 목위에 눈이 있고 머리 끝에 입이 있다. 입둘레에는 여덟 개의 다리가 있어 굽기가 큰 쥐의 꺼리만하며 길이는 두세치에 불과한데 모두 국체가 붙어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물체를 거머잡기도 한다. 그 중 특별히 긴 두다리가 있다. 그 두다리의 길이는 한자 다섯치 정도로 모양이 회초리와 같다. 둥근 꽃과 같아 어떤 물체에 달라붙는다. 전진할 때에는 거꾸로 곤두서서 가기도 하고 그대로 순순히 가기도 한다. 이들 다리에는 타원형의 긴뼈가 있다. 이 오징어의 살은 대단히 무르고 연하며, 알이 있다. 가운데에 있는 주머니에는 먹물이 가득 차 있다. ③ 만일 적이 나타나 침범하면 그 먹물을 뱉어 내어 주위를 가리는데, 그걸 취해 글씨를 쓰면 빛깔이 매우 윤기가 있다. 단 오래되면 벗겨져서 흔적이 없어진다. 다시 바닷물에 넣으면 먹의 흔적이 새로워 진다고 한다. 등은 검붉고 반문이 있다고 한다. ④ 맛은 감미로와 회나 마른포 감으로 좋다. ⑤ 그 뼈는 곧잘 상처를 아물게 하며 새살을 만들어 낸다. 뼈는 또한 말이나 당나귀 등의 등창을 고친다. 이들의 등창은 오징어뼈가 아니면 고치기 어렵다. ⑥ 살펴보면 본초, 정자통...진창기...소식 어설...소송...남월지...이아익... ⑦ 이 여러 가지 설에 의하면 혹은 ‘산대’가 변한 것이라고 하고 혹은 붉은 물 때문에 까마귀에게 해되는 바가 있다고 했고, 혹은 거것으로 죽은 채하여 까마귀를 잡아먹는다고도 했고, 혹은 물새가 변하였다고 하며, 혹은 ‘한오’</p>	<p>①크기 ②형태 ③효용 ④맛 ⑤약용 ⑥문헌인용 ⑦분석 ⑧의견</p>

	<p>가 변하였다고도 했다. 모두 아직까지 실상을 보지 못하여 그렇다고 할 수 없다. ⑧ 내 생각에는 오적은 ‘혹한’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먹을 품은 것으로 생긴 이름으로, 훗날에 물고기 ‘어’변을 붙여 ‘오적’으로 만든 것 같다. 사람들이 이것을 생략하여 ‘죽’으로 만들고 또 ‘죽’으로 만들었으며 혹은 와전되어 ‘죽죽’으로 되었는데,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¹³⁾</p>	
<p>난 호 어 목 지</p>	<p>“오적어는 ① 모양이 수효를 세는 산가지를 넣는 주머니 같다. 껍질은 검고, 비늘은 없고, 턱밑수염이 길어서 허리띠와 같고, 배밑에는 여덟 개의 발이 모여 입가에 나 있다. 뱃속에는 피와 쓸개가 있는데, 순수한 검은 빛이 먹물같다. ② 사람을 보거나 큰 물고기를 보면 문득 먹물을 뱉어 내는데, 그것이 사방 수척에 이르고, 스스로 그 속에 몸을 숨긴다. 그래서 일명 ‘묵어’라고 한다. ③ 풍파를 만나면 턱밑수염으로써 닳돌같이 내리니, 그 모양이 닳돌같다. 그래서 또 이름이 ‘남어’라고 한다. ④ 성질은 까마귀 먹기를 좋아한다. 매양 스스로 수면 위에 떠올라 있으면, 나르는 까마귀를 보고 죽은 듯 쫓아 이를 잡아 거두어 물속으로 들어가 잡아 먹는다. 그래서 ‘오적’이라고 한다. ⑤ 설문에 보면 ‘오죽’이라 한 것은 그 먹물로 글을 쓰면 모범이 될 만하다고 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⑥ 수시로 잡는데 담상을 만들면 맛이 좋다. ⑦ 등에는 하나의 뼈가 있는데, 생긴모양은 배와 같고 두께는 4.5분이고 양쪽 끝은 뾰족하고 빛깔은 희며 거품같이 가벼워서 으름덩굴 같은데, ⑧ 약에 들어가면 그이름을 해표소라 한다.”¹⁴⁾</p>	<p>① 형태 ②습성 ③일명유래 ④식성 ⑤문헌인용 ⑥요리법 ⑦부산물 ⑧약용</p>

- 12) “鰓鰻 一名烏老人 一名幞頭魚 一名烏賊奴 一名僧魚 尾以上似小鱸 有肉尾長尺餘 捲則如猪毛帚子 張則如團扇 常時捲行 水中見烏則張尾倒起裏其身 一頭圓滿與僧頭 一頭半開凹如牢子 幞頭浮水上 出沒水鳥鷺鷥 洶河鴉鳶之屬 從凹處窺見 魚頭以口啄之 魚輒牢合凹處 牽而入水 須臾烏死 此魚體肉佛佳 尾肉色淡黃 熟則爛紅 作羹味似鯪魚 然不辣甚佳 尾尖有贅肉 如鳥殼有毒須快去 有一種混沌幞頭 天生張裏 不能捲束 食之令人拘攣云 蓋吳賊之類也…”
- 13) “烏賊魚 大者徑一尺 許體橢圓 頭小而圓 頭下細頸 頸上有目 頭端有口 口圍有八脚 細如釣綸 長不過 二三寸 而皆有菊蹄 欲行則行 有物則攬者也 其中別出二長脚 如修子長尺有五寸 許脚末如馬蹄 有團花所以黏著者也 行則倒行 亦能順行 背有長骨 亦橢圓間甚脆軟 有卵 在中有囊盛黑汁 有物侵之 則噴其墨以眩之 取其墨而 書之色極光潤 但久則剝落無痕 浸以海水則墨復更新 云背亦黑有斑文 味甘美 玄鱸腊 其骨能合瘡生 脰骨亦治馬瘡 驢之背瘡 非此莫治 詳按本草(一名烏賊, 一名烏鰂, 一名墨魚, 一名纒魚 骨名海鰂)… 正字通… 陳藏器… 蘇軾 魚說… 蘇頌… 南越志… 爾雅翼… 據此諸說 或言算袋之所變 或言煦水 而為烏所害 或言佯死 而攬烏以食 或言烏鰂之所化 或言寒鳥之所變 俱未有實見 不可許也 余謂烏賊者 猶言黑漢以其懷墨 故名也 後仍加魚 作魚吳鰂 人有作鰂 亦作鰂 或譌竹鰂 非有他義也.”
- 14) “烏賊魚 오적어 狀如算符 皮黑 無鱗 鬚長如帶 腹下八足 聚生口傍 腹中血及膽 正黑如墨 見人及大魚 輒噴墨 方數尺 以自混其身 故一名墨魚 通風波 則以鬚下疇如纒 故又名纒魚 性喜食烏 每自浮上 飛鳥見之 以為死而啄之 及卷入水食之 故謂之烏賊 說文 作烏鰂 則

이상 <표 3>의 오징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3종의 전문 물고기백과사전의 기술항목은 많은 부분 공통되고 있으나 실제 기술된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오징어의 습성이나 명칭 유래가 기술되는 물새(까마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해이어보는 ‘물새 등이 나타나면 오목한 머리 안에서 몰래 엿보다 쪼이면 바로 머리를 닫고 물새를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새는 죽고 만다’라고 한 반면 자산어보는 ‘혹은 거짓으로 죽은 채하여 까마귀를 잡아먹는다’고도 했고, 혹은 ‘물새가 변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난호어목지는 ‘성질은 까마귀 먹기를 좋아한다. 매번 스스로 수면 위에 떠올라 까마귀가 날라오면 보고 죽은듯 해 쫓으면 이를 감아 거두어 물속으로 들어가 잡아 먹는다.’ 그래서 ‘오적’이라고 한다는 명칭의 유래까지 설명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예로 먹물에 대한 기술을 보면 우해이어보에는 먹물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자산어보의 경우 가운데 주머니의 먹물로 적에게 먹물을 뱉는다든가 먹으로 쓴 글씨의 빛깔과 오래되어 흔적이 없어지면 다시 바닷물에 담가 새롭게하는 등의 효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반면, 난호어목지의 경우 사람을 보거나 큰 물고기를 보면 바로 먹물을 뱉어 내어 얻게 된 ‘묵어’라는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으로 오징어에 대한 내용 기술을 종합하면 습성의 기술은 우해이어보가 상세하고, 형태와 인용문헌의 설명은 자산어보가 자세하다.¹⁵⁾ 난호어목지는 명칭의 유래까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체적인 설명 부분을 보면 자산어보가 실제 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인용서를 참고하면서 분석하고 본인의 의견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산어보의 인용문헌상의 명칭에 대한 실사의 필요성 언급은 의미가 크다.

한편, 자산어보의 내용 중 본초 즉 본초강목 상의 ‘일명’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해이어보의 일명에 대한 내용과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우해이어보가

謂其有文墨可法則也 取之無時 作淡□味美 背有一骨 形如舟厚三四分 兩頭尖 色白 輕泡如通草 入藥名海蠔蛸.”

15) 참고로 오징어에 대한 인용문헌상의 기술은 자산어보가 매우 상세하다. 다만 민어와 다른 물고기에 대한 내용기술을 살펴보면 난호어목지가 매우 상세하다.

내용상에 인용한 문헌에 대한 서명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시 문헌의 참조를 기본으로 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보인다.

또한 내용 기술 중 특기할 것은 난호어목지의 ‘論東產未詳’에 수록되어 있는 ‘擔羅’의 경우 자산어보에는 대항목 ‘介類’ 아래 소항목 ‘蛤’의 설명에서 기술하고도 있다. 즉 난호어목지는 『本草拾遺』를 인용하며 설명하면서 우리 동쪽에서는 속명을 무엇이라 하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한 반면, 자산어보는 흑산바다에서 볼 수 있는 조개에 의거하여 속명으로 실어 기록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난호어목지는 주로 문헌을 인용하고 있고, 자산어보는 문헌의 기록을 참고하되 실제 조사를 더하여 실상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3.2.6 인용문헌

우해이어보는 『續本草綱目』, 『東醫寶鑑』, 『周書』, 『禮記』, 『漢書王莽傳』을 인용하고 있다. 반면 자산어보는 약 80종을, 난호어목지는 약 60여종의 매우 다양한 문헌이 인용되고 있다. 3종의 전문 물고기백과사전의 인용문헌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인용문헌 정리표

어보	인 용 문 헌	비 고
우해이어보	東醫寶鑑, 續本草綱目, 禮記, 周書, 漢書 王莽傳 등	周書: 北周書
자산어보	郭璞의 江賦, 康熙字典, 顧況의 詩, 郭璞의 爾雅 注, 南越志, 段氏(段公路)의 北戶錄, 唐書 新羅傳, 圖經本草, 陶弘景의 本草 注, 洞冥記, 董越의 朝鮮賦, 東醫寶鑑, 杜甫의 詩, 馬志, 明一統志, 博物志, 博雅, 本草綱目, 本草圖經, 本草拾遺, 史記 始皇本紀, 史記 禮書, 史記 貨殖傳, 司馬相如의 上林賦, 山海經, 三國志, 徐鉉의 稽神錄, 浙志, 說文, 蘇頌의 新儀象法要, 蘇軾 魚說, 荀子の 議兵篇, 述異記, 拾遺記, 詩經 神異經, 沈懷遠의 南越志, 呂氏春秋, 譯語類解, 嶺南志, 嶺表錄異記, 吳都賦, 玉篇, 王易의 燕北錄, 韻篇, 魏武食制, 魏志倭人傳, 西陽雜俎, 類編, 陸璣詩疏, 六書故, 異物志, 爾雅, 爾雅 釋魚篇, 爾雅 釋鳥篇, 爾雅翼, 爾雅注疏, 異苑, 日華子, 林邑記, 臨海異物志(또는 臨海志), 字通, 字彙補, 正義, 正字通, 鳥獸考, 俎異記, 趙辟公雜錄, 左思의 吳都賦, 集韻,	

<p>난호어목지</p>	<p>漢書地理志, 鄉語, 會稽志, 淮南子, 後漢書, 後漢의 馬融傳注 등 郭璞의 江賦, 廣雅, 羅願의 爾雅翼, 樂清志, 南山志, 南方異物志, 南州異物志, 南越志, 南海雜志, 大明一統志, 圖經本草, 東醫寶鑑, 董越 朝鮮賦, 孟詵의 食療本草, 文選, 閩中海錯疏, 博物志, 本草綱目, 本草拾遺, 史記 封禪書篇, 山海經, 山海經 東山經篇, 西征賦, 浙志, 說文, 聖濟總錄, 星湖僊說, 詩集傳, 物本草, 沈括 夢溪筆談, 於于野談, 呂氏春秋, 酈道元 水經注, 嶺表錄, 玉篇, 王易의 燕北錄, 王思義의 三才圖會, 袁達의 禽蟲述, 西陽雜俎, 鐙續의 霏雪錄, 醫鑑, 醫學入門, 異物志, 爾雅, 爾雅 釋魚, 爾雅正義, [異魚贊], 李調元 然犀志, 臨海異物志, 臨海志, 字書, 田九成 遊覽志, 戰國策, 正字通, 左思 吳都賦, 泉州府志, 草木蟲魚疏(陸璣의 시, 楚辭, 蜀本草, 崔禹錫) 食經, 通雅, 馮時可 兩航雜錄, 夢溪筆談, 漢書, 司馬相如傳, 蟹譜, 和漢三才圖會 등</p>	
--------------	---	--

이상 <표 4>에 의하면 자산어보와 난호어목지에 인용된 인용문헌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 자산어보와 난호어목지의 공통 인용된 문헌은 李時珍의 『本草綱目』, 郭璞의 『爾雅注』, 郭璞의 『江賦』, 『博物志』, 『山海經』, 『說文解字』, 『譯語類解』, 『爾雅』, 『爾雅翼』, 『正字通』 등이다.

그 외에 인용문헌의 내용상의 기술 약식을 살펴보면 자산어보의 경우 본서명 외에 약서명과 저자명으로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난호어목지의 경우 저자명과 본서명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산어보는 조사와 탐방을 겸하고 있고 난호어목지는 주로 인용문헌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산어보와 난호어목지는 명칭의 설명과 물고기 관련 설명을 위하여 국내와 중국의 문헌을 참고 또는 인용하면서 분석과 더불어 문헌 상에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 잡고 있다.

4. 결 언

1425년 河演의 『慶尙道地理志』 土山部에 처음으로 물고기 관련 기술이 등장한 이래 18세기말까지 편찬된 물고기관계문헌을 살펴보면 역사서지리지, 지리서, 유서, 농서, 의서, 시문선집 및 대역어휘집 등에서 물고기의 명칭과 산지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었다. 19세기 들어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다양한 백과사전류가

편찬되면서 종합적인 성격의 백고사전의 일부나 부문으로 물고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류도 등장하고 있다. 종합적인 백고사전으로 물고기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으로 『才物譜』, 『雅言覺非』, 『物名考』, 『林園經濟志』, 『五洲衍文長箋散稿』를 살펴보고,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으로 『牛海異魚譜』, 『茲山魚譜』, 『蘭湖漁牧志』를 고찰하였다. 특히 3종의 전문적인 물고기백과사전에 대하여 배경부문과 내용부문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결과와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해이어보는 경상도 진해 연안의 물고기를 대상으로 실사와 일부 인용 문헌 참조의 방법으로 물고기와 비물고기 총 72종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세기 전까지의 물고기관계문헌이 주로 어종의 명칭과 산지 및 일부 약용효과를 기술하여 온 것에 반해 본격적으로 한 지역의 물고기를 조사하고 다방면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 최초의 어보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

둘째, 자산어보는 전라도 흑산도 연안의 물고기를 대상으로 실사와 원주민 탐방 및 인용문헌 참조 및 고증의 방법으로 인류, 무인류, 개류와 잡류의 4항목 총 226종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가장 방대하고 자세하게 물고기를 분류하고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인용문헌을 통하여 내용을 고증, 보충 및 기존의 오류 정정 외에 실사의 필요성과 본인의 의견도 기술하고 있는 전문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난호어목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거나 포획되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헌의 연구 및 고증을 통하여 강어와 해어 외에 특종어류를 포함하여 총 154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는 특히 한글어명과 당시 실제어명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 어민의 생활 개혁에 일조가 되는 문헌으로 이후 종합적인 농학관련 백과사전인 『林園經濟志』 저술의 초석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15세기 이래로 물고기관계문헌이 등장하고 있으나, 19세기 들어 편찬된 종합적인 백과사전류에서의 물고기관련 내용의 기술과 전문 물고기백과사전의 편찬은 획기적인 사건의 하나이다. 특히 동식물의 분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 전역 및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물고기를 조사 정리

하고 있는 전문 물고기백과사전은 19세기 동해와 서해 및 전국의 물고기 서식
실태, 동서 지역별 어종의 특징과 변화, 문헌상의 기록과 실제 그리고 역사적인
전문 백과사전 등으로서 현대적 연구와 활용 가능성에도 의미가 크다.

<참고문헌>

「蘭湖魚牧志」.

「物名考」.

「雅言覺非」.

「五洲衍文長箋散稿」.

「牛海異魚譜」.

「林園經濟志」.

「茲山魚譜」.

「才物譜」.

김근수. “한국실학과 명물도수학.” 『정신문화』 12(1982). 86-97.

金大植, 郭□, 李金喜. “『茲山魚譜』研究.” 『국어국문학논총: 碧史 李佑成 先生
停年退職記念』. 서울: 여강출판사, 1990.

김언중. “『茲山魚譜』名稱攷.” 『한문교육연구』 21(2003). 411-433.

김중빈. “魚譜類에 나타난 19C초의 수산물 어휘연구: 『茲山魚譜』(1814), 『蘭湖
魚牧志』(1820), 『物名考』(1824?)의 수록 어휘를 중심으로.” 『한어문교
육』 12(2004). 137-173.

金洪錫. “『牛海異魚譜』에 나타난 借字表記法 研究: 魚名을 중심으로.” 『語文研
究』 29:1(2001). 100-134.

김홍석. 『<우해이어보>와 <자산어보> 연구: 근대 국어자료인 두 어보』. 서울:
한국문화사, 2008.

박구명. “『우해이어보』·『자산어보』·『난호어목지』.” 『해양과문화』 제5호(2001).

4). 186-207.

박준식. 『참고정보원』. 대구: 태일사, 2003.

李漱玉. “朝鮮末期魚蟹圖: 民畫를 중심으로.” 『古美術』 봄호(1988). 21-24.

정명현.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자산어보』(茲山魚譜)에 담긴 해양 박물학의 성격.” 과학사 및 과학철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2002.

정문기. 『韓國魚圖譜』. 서울: 一志社, 1977.

鄭文基. 『韓國魚譜』. 서울: 商工部, 1953.

_____. 『魚類博物誌』. 서울: 一志社, 1974.

丁若銓. 『(詳解)茲山魚譜: 附行狀 書簡 圖譜集』. 신안군: 신안군기획감사실, 19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朝鮮後期漢字語彙檢索辭典: 物名考. 廣才物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허태용. “丁若銓의 茲山魚譜 연구.” 『韓國人物史研究』 4(2005). 225-249.

洪淳鐸. “茲山魚譜와 黑山島 方言.” 『호남문화연구』 1(1963). 75-104.

<부록 1> 우해이어보의 표제어¹⁶⁾

분 류	표 제 어(한 글 명)	비 고
	文鯪魚, 鮓魚(각시붕어), 甬魚羅(불낙), 紅魚寺(줄공치), 馬紅魚寺(학공치), 鯛鯛(흰 실뱀장어), 鼠魚鱗(쥐노래미), 石河鮪(줄복), 沈子魚(比目魚), 都魚(돌고래의 일종), 閔鯊魚(모래무지의 일종), 魚蒸魚(정어리멸치), 魚囊鮫(가방어), 魚鳥鰓(오징어), 鱸奴魚(꺼정어), 石首查頓(참조기), 鯨鰐(민어), 豹魚(메기), 魚參差(다랭어), 鯨魚(납자루), 魚魚(동자개/창고기), 靑家魚(가오리/홍어), 鬼魚, 魚魚(도미), 閔良魚, 鮓魚(문어/낙지), 安魚, 可達魚(꼭정어일종), 鮓(쏘가리), 眞鯖(참치), 飛玉(뱅어), 魚魚(옹어), 鯨魚(붕어의 일종), 鮓鯨(꼬치삼치), 鱸魚(황반대구), 石鯛子(방어), 吐魚, 銀色鯨魚(은잉어), 鯨魚(동자개), 海陰莖(개불), 貝魚(승어의 일종), 黑鮓(전복의 일종), 鮓魚, 阿只魚(승어의 일종), 魚魚(돌고기), 魚魚(드렁허리), 倭魚松(왜송어), 箭沙鯨魚(철갑상어의 일종), 鱸魚(옹어의 일종), 帖錢魚(은연어), 魚魚(미꾸리), 鮓達魚(도다리), 白條魚	鯨魚虎 : 또는 鯨魚骨
부 록	蟹 芎藤蟹(참게), 石蟄(돌방게), 馬糞蟹(말똥게), 白虫越(달랑게), 鉅齒蟹(꽃게), 虫邊虫片(농게), 平床蟹	
	蛤 老姑蛤(할미조개), 長蛤(긴조개), 半月蛤(반달조개), 瓦壘子(모막)	
	螺 鸚鵡螺(앵무소라), 蟹螺(집게), 蝦兒蠡螺(새우소라), 鶴鳥螺(황새소라), 海蔘古董(해삼고동)	

<부록 2> 자산어보의 표제어

대 · 소항목	표 제 어(한 글 명)	비 고	
鱗 類	石首類	大鯢(애우치), 鮓魚(민어), 踏水魚(조기)	
	鯢魚	鯢魚(승어), 假鯢魚(가승어)	
	鱸魚	鱸魚(농어)	
	強項魚	強項魚, 黑魚(감성돔), 瘤魚(혹돔), 骨道魚(닥도미), 北道魚, 赤魚(강성어)	
	鱒魚	鱒魚(준치)	
	碧紋魚	碧紋道(고등어), 假碧魚(가고도어), 海碧魚(배악어)	
	靑魚	靑魚, 食鯖(목출참), 假鯖(우동뿔), 實目鯖	
鯨魚	鯨魚(상어), 膏鯨(기름상어), 眞鯨(참상어), 蟹鯨(게상어), 竹鯨(죽상어), 癡鯨(비근상어), 矮鯨(왜상어), 駢齒鯨(병치상어), 鐵到鯨(줄상어), 驍鯨(모돌상어), 鐘鯨(저자상어), 鱸閣鯨(귀상어), 四齒鯨(사		

16) 이하 부록 1과 2의 한글명은 이해를 위하여 관련 연구문헌들을 참고하여 덧붙인 것으로 한자표제어와 같은 경우 생략하였다.

	치상어), 銀鯊(은상어), 刀尾鯊(환도상어), 戟齒鯊(극치상어), 鐵甲將軍(철갑장군), 箕尾鯊(내안상어), 錦鱗鯊(총절입)	
魴魚	魴魚(금치귀), 薄脣魚(불낙어), 赤薄脣魚, 鰓魚(복제어), 釣絲魚(아구어), 鰲魚(손치어)	
鰈魚	鰈魚(넙치가자미), 小鰈(가자미), 長鰈(혜대어), 羶鰈(돌장어), 痰鰈(해풍대), 牛舌鰈(서대)	
小口魚	小口魚(사방어)	
魴魚	魴魚(웅어), 海魴魚(밴댕이)	
鱗魚	鱗魚(망어), 黃魚(대사어)	
靑翼魚	靑翼魚(승대어), 灰翼魚(장대어)	
飛魚	飛魚(날치)	
耳魚	耳魚(노래미), 鼠魚(쥐노래미)	
箭魚	箭魚	
扁魚	扁魚(병어)	
鰓魚	鰓魚(멸치), 大鰓(정어리), 短鰓(반도멸), 酥鼻鰓(공멸), 杻鰓(말독멸)	
大頭魚	大頭魚, 凸目魚(장동어), 鰲刺魚(룽가리)	
鰓魚	鰓魚(홍어), 小鰓(발굽어), 痕鰓(간자), 靑鰓(청가오리), 墨鰓(묵가오리), 黃鰓(노랑가오리), 螺鰓(나가오리), 鷹鰓(매가오리)	
海鰻鱧	海鰻鱧, 海鰻鱧(장어), 海大鰻(붕장어), 犬牙鰻(갯장어), 海細鰻(대광어)	
海鮎魚	海鮎魚(바다메기), 紅鮎(홍달어), 葡萄鮎(포도메기), 長鮎(골망어)	
鮎魚	鮎魚(검복), 鵲鮎(까치복), 滑鮎(밀복), 澁鮎(까칠복), 小鮎(졸복), 蝟鮎(가시복), 白鮎(흰복)	
烏賊魚	烏賊魚(오징어), 鯨魚(고목어)	
章魚	章魚(문어), 石距(낙지), 蹲魚(죽금어)	
海豚魚	海豚魚(상괘어)	
人魚	人魚	俗名玉朋魚
四方魚	四方魚	
牛魚	牛魚(화질육)	
鱸殘魚	鱸殘魚(뱅어)	
鰻魚	鰻魚(공치), 裙帶魚(갈치), 鸛鶩魚(한새치)	
千足蟾	千足蟾(천족담)	
魚鮐	海鮐(해पाल어)	
鯨魚	鯨魚(고래)	
海鰕	大鰕	
海參	海參	
屈明蟲	屈明蟲	
淫蟲	淫蟲(음충)	

介類	海龜	海龜(바다거북)	
	蟹	舞蟹(벌덕게), 矢蟹(살게), 籠蟹(농게), 虿蟹(돌장게), 小蟹(삼게), 黃小蟹(노랑게), 白蟹(흰게), 花郎蟹(화랑게), 蛛腹蟹(몸살게) 川蟹(참게), 蛇蟹(뱀게), 豆蟹(콩게), 花蟹(꽃게), 栗蟹(밤게), 鼓蟹(동게), 石蟹(가제), 白石蟹(흰돌게)	
	鰩	鰩魚, 黑笠鰩(비말), 白笠鰩(흰비말), 烏笠鰩(가마귀비말), 匾笠鰩(변립복), 大笠鰩	
	蛤	縷文蛤(대롱조개), 瓜皮蛤(누비조개), 布紋蛤(반지락), 孔雀蛤(공작조개), 細蛤(나박조개), 札蛤(주걱조개), 黑札蛤(백합), 雀蛤(새조개), 蟹腹蛤(게배조개), 匏子蛤(함박조개)	
	蚶	蚶(고막), 雀蚶(새고막)	
	蛭	蛭(맛)	
	淡菜	淡菜(홍합), 小淡菜(소담채), 赤淡菜(적담채), 箕蛭(키홍합)	
	蠔	牡蠣(굴), 小蠣(잔굴), 紅蠣(홍굴), 石華(석화), 桶蠔(굴통굴), 五峰蠔(보살굴), 石肛蠔(홍말주알), 石蛇(석사)	
	螺	海螺(소라), 劍城贏(구죽), 小劍螺(다사리), 兩尖螺(양다사리), 平峯螺(평봉다사리), 牛角螺(다래고동), 巖布螺(삼고동), 明紬螺(명주고동), 炬螺(햇고동), 白章螺(감상고동), 鐵戶螺(딱지고동), 杏核螺(은행고동), 銳峯螺(뽕죽고동)	
	栗毬蛤	栗毬蛤(밤송이조개), 僧栗毬(승률조개)	
	龜背蟲	龜背蟲(구름범)	
	楓葉魚	楓葉魚(개부진)	
	雜類	海蟲	海蛋(해조), 蟬頭蟲(개강귀), 海玃, 海踏躑(쏘)
海禽		鷗鷺(오지), 水鷗, 海鷗, 鵲燕(준지락), 蛤雀(조개새)	
海獸		膾膾獸(물개)	
海草		海藻, 海帶(미역), 假海帶(떡아재비), 黑帶草, 赤髮草, 地鱧, 土衣菜	
		海苔(김), 海秋苔, 麥苔, 常思苔, 羹苔, 莓山苔, 信經苔, 赤苔, 菹苔, 甘苔, 紫菜, 葉紫菜, 假紫菜, 細紫菜, 早紫菜, 脆紫菜(취자채), 石寄生(석기생), 駿加菜(중가사리), 蟾加菜(섬이가사리), 烏足草(새발초), 海凍草(우모초), 蔓毛草(나출우모초), 假海凍草(가우모초), 綠條帶(진질), 短綠帶(폭진질), 石條帶(고진질), 靑角菜, 假珊瑚	

<부록 3> 난호어목지의 표제어

	표제어(한글 표제어)			비고
江魚	鯉(이어), 鯿(승어), 鱸(노어), 鱒(독너올이), 鮒(붕어), 鮠節(남작어), 鰱(참피리), 鯊(모리막즈), 杜父魚(좁막즈), 鰻(소갈어), 鱗魚(위어), 細魚(찌나리), 訥魚(누치), 鮠章魚(모장이), 赤魚(발강이), 葛多歧魚(쌀담이), 銀口魚(은구어), 餘項魚(여항어), 眉叟甘味魚(미슈감미), 飛鰻魚(날피리), 赤鰓魚(불거지), 眼黑魚(눈검정어), 斤過木皮魚(씩적위), 箭魚(솔치), 也回魚(야회어), 豚魚(돛고기), 迎魚(마지), 鯪魚(치리), 柳魚(벼들치), 堰負魚(등지계), 裂娑魚(가스어), 菊息魚(국식이), 鮎(머여이), 鱧(가물치), 鰻鱺魚(비암장어), 鰻(드렁허리), 泥鰻(밋구리), 河豚(복), 黃頰魚(자가사리), 鱸絲魚(통자기), 水魚(빙어), 鱖魚(공치), 僧魚(중곡이), 文鞭魚(그리치), 望瞳魚(망둥이), 鯪魚(밀어), 龜(거북), 鰲(자라), 鼈(큰자라), 蟹(게), 蚌(가장자근조기), 馬刀(물심조기), 蜆(가막조기), 田贏(울렁이), 蝸贏(달팽이)			
海魚	石首魚(조기), 黃石首魚(황석슈어), 鰲魚(민어), 鰻(준치), 勒魚(반당어), 秃尾魚(도미), 靑魚(비웃), 鰈(가즈미), 舌魚(셔디), 華臍魚(넙치), 鰹(병어), 魴(방어), 年魚(년어), 松魚(송어), 錢魚(전어), 黃魚, 鮮白魚(선비), 虎魚(범고기), 水魚(물치), 麻魚(삼치), 和尚魚(중고기), 膾代魚(횃디), 寶窟帶魚(보굴디), 鬱抑魚(울억어), 貢魚(공치), 林延壽魚(임연슈어), 羅赤魚(나적어), 加魚(가어), 悅嗜魚(얼씩어), 泥漣水魚(이연슈어), 牛拘秦魚(쇠보이고기), 潛方魚(잠방이), 軍牢魚(굴너고기), 呢睨魚(일익), 鰲枕魚(닷벼기), 鯨(고리), 長須平魚(장슈피), 鮑魚(내인), 沙魚(상어), 海豚魚(슈욱이), 蒸魚(증어), 升魚(승어), 人魚(인어), 文鯪魚(날치), 海鰻鱺(비암장어), 葛魚(갈치), 吳魚(디구), 明鮠魚(명티), 북어, 古刀魚(고등어), 鼠魚(쥐치), 彈塗魚(장쑹이), 銀魚(도모목), 海鶴魚(가오리), 洪魚(무렵), 靑障泥魚(청다리), 繡鰻魚(슈거리), 鯪(멧), 烏賊魚(오징어), 柔魚(호독이, 솔독이), 章魚(문어), 石距(낙지), 望湖魚(죽근이), 水母(물암), 海蔘(희삼), 鰕(시우), 玳瑁(터모), 鰻(싱북), 海蚌(바다긴조기), 文蛤(디합조기), 白蛤(모시조기), 蛤虫利(참조기), 虫舍虫進(함진조기), 車螯(가장큰기), 蚌(강요쭈), 淡菜(홍합), 蜆(가리맛), 牡蠣(굴조기), 海贏(흡힘)			明鮠魚 :俗呼生者명티, 乾者爲북어 柔魚 :湖南人呼爲호독이, 海西人呼爲솔독이
그외	海魚未驗	華產未見	東產未詳	
	鱸, 鮠, 鮠, 牛魚, 鮠, 馬鮫魚, 堅魚, 鱠殘魚, 海馬	鰻, 鮠, 鮠, 靑魚, 白魚, 鮠, 鰻, 黃鰻魚, 金魚, 鯛, 鰻	擔羅	

